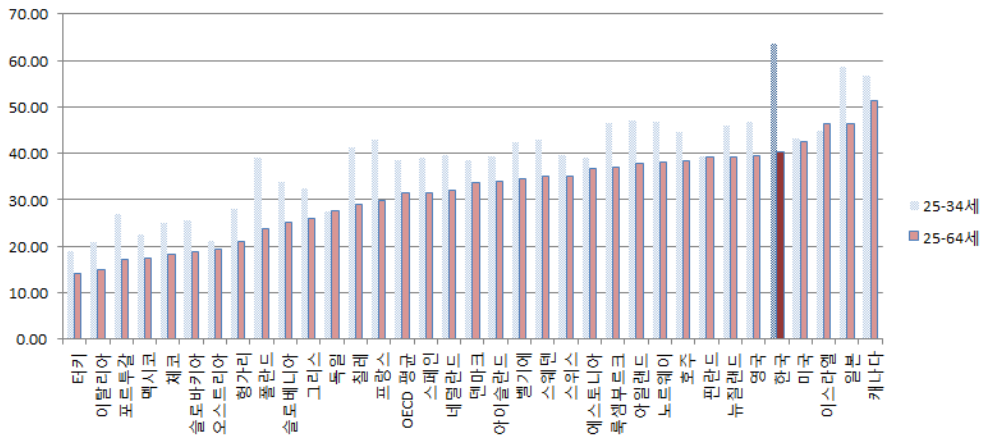


OECD 국가들의 인구 중 대졸자 비중과 대졸자 상대소득

- 25~64세 인구 중 우리나라 대졸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40.4%로 나타남.
 - 여기서 대졸자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며, 대졸자 비중이란 25~64세 인구 중 이들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비중을 의미함.
- 우리나라보다 25~64세 기준 대졸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, 일본, 이스라엘, 미국으로 나타남.
 - OECD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약 10%p가량 낮은 31.5%였으며,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교-일 연계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로 유명한 독일은 27.6%에 불과하였음.
- 반면, 25~34세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63.8%가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일본과 캐나다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졸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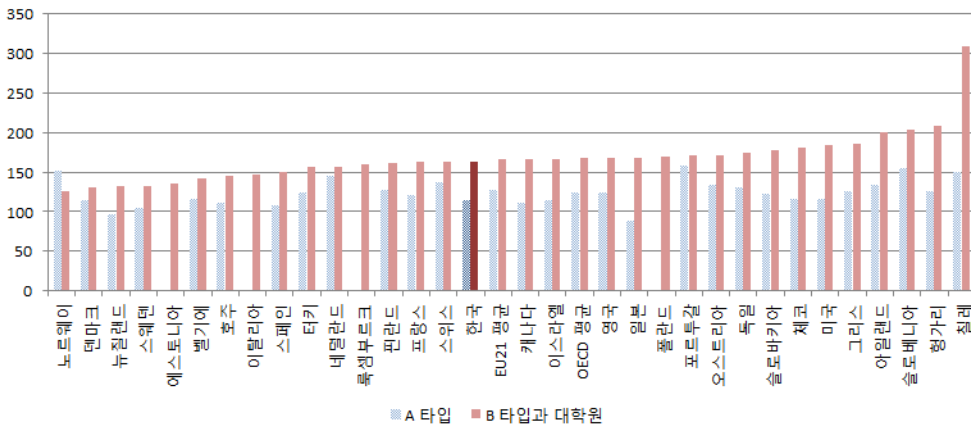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인구 중 대졸자 비중(3차 학교, 전문대+4년제)

(단위 : %)



- 대부분의 나라에서 25~34세 대졸자 비중이 25~64세보다 높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력화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음.
 - 25~34세와 25~64세의 대졸자 비중이 비슷한 나라는 미국, 이스라엘, 독일, 오스트리아,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 불과함.
- 우리나라 4년제 대졸자의 상대소득은 OECD 평균 168에 약간 못 미치는 164로 나타남.
 - 남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수치이며,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차 학교 교육은 받지 않은 사람을 100으로 놓았을 때의 상대소득임.
- 4년제 대졸보다 전문대졸의 상대소득이 OECD 평균에 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전문대졸의 OECD 평균 상대소득은 125인데 반해, 우리나라는 116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OECD 국가들의 25~64세 3차 학교 졸업자의 상대소득



주 : A타입은 우리나라 전문대에 해당. B타입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해당. 2011년 기준.
 자료 : OECD, Education at a Glance 2013.
http://www.oecd-ilibrary.org/education/education-at-a-glance-2013/relative-earnings-of-adults-with-income-from-employment-by-educational-attainment-gender-and-age-group-2011_eag-2013-table45-en

- 다만, 이와 같은 상대소득의 차이는 국가별로 교육제도가 동일하지 않고, 사회적 환경이나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이 제대로 감안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주의해야 함.

KLI

(성재민, 동향분석팀 전문위원)